판결·처분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배상 판결이 끝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부담을 낮추다.

배상 부담 제한·분할 지급

조정 결과

손해배상 항소심 · 조정 성립

부 산 지 방 법 원

조 정 조 서

법무법인 해율

법무법인 해율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2025년 6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매달 말일에 12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1항 기재 금원을 정해진 대로 모두 지급하면,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피고가 1항에 기재된 금원의 지급을 2회 연체하면(비연속적 연체를 포함한다), 위 1항 및 2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92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1.부터 2024. 4.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4.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원금 변제에 우선 충당된 것으로 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01 이런 상황에서 해율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한 번에 상당한 돈을 지급해야 할 부담이 생긴 사건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회수의 길이, 지급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의 범위가 절실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액수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근거와 실제 결과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02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

얼마를 언제 지급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부담은 달라집니다. 분할 지급이나 담보, 추가 청구에 관한 조건이 있다면 금액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과 실제 입금도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손해가 있었다는 주장, 그 손해를 특정 상대방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 청구한 금액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배상 판결이 끝은 아닙니다.

해율은 부담을 줄이고 12회 분할로 조정했습니다.

- 손해배상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 1심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항소를 고민한다면
- 분할 지급과 감액 조건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해율과 함께 얻은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청구액보다 적은 금액을 12회 나누어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다만 두 차례 연체하면 감액의 효력이 사라지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조정조항은 지급할 내용뿐 아니라 서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범위와 이행 조건까지 함께 정합니다. 이번 결과도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읽어야 하며, 조정 성립만으로 모든 금전의 지급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04 당신의 상황과 나란히 보십시오

받아야 할 돈을 받을 길로 연결하고, 책임져야 할 범위를 분명히 하는 일은 의뢰인의 생활과 직결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그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가 실제 결과로 남았습니다.

비슷한 돈 문제라면 현재 가진 자료와 절차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내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해율은 이 사건에 함께 한 경험과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해율은 부담을 줄이고 12회 분할로 조정했습니다.

- 연체 시 부담이 다시 커지는 조건이 걱정된다면
- 상대방이 요구한 배상액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 감당할 수 있는 지급 계획으로 분쟁을 정리하고 싶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